코로나 석 달···광주·전남 취업자 2만8000명

30대 취업자 무려 7만3000명 줄며 가장 큰 타격 60세 이상 취업자 석 달 동안 5만8000명 늘어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지난 석 달 동안 광주·전남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만 8000명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경제 허리'라 불리는 30 ~40대 취업자 수는 무려 7만9000명 줄 었다.

1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 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광주 74만7000명, 전남 98만1000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각각 1000명 줄고 5000명 늘었다.

광주지역취업자수는 3월(-9000명)과 4월(-8000명)에 이어 석 달째 감소했다. 전남지역은 3월(-7000명), 4월(-8000 명) 감소세를 보인 뒤 지난달 5000명 증 가하며 반등했다.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 작한 지난 3월~5월 광주·전남 취업자 수 는 2만8000명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취업자가 무려 7 만3000명 줄며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 3월에는 감소폭이 2만7000명(광



■3~5월 광주·전남 취업자수 증감

〈단위:명,자료:호남통계청〉

감소한 58.7%를, 전남은 0.8%포인트 오 른 64.3%를 나타냈다.

지난달 광주지역에서는 취업자 수가 도 소매·숙박·음식점업이 1만1000명, 농림 어업이 6000명 늘었다. 반면 공공과 민간 분야 건설 관련 발주 제한 등으로 건설업 에서 1만1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업 7000명 등 취업자가 격감했다.

전남지역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농림 어업(1만4000명)과 광공업(3000명) 취 업자가 증가했고 전기·운수·통신(-8000 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4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000명)에서

황해범 호남통계청 과장은 "광주 로컬푸 드활성화와 영농철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60대 농업 취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늘었 다"며 "지난해 상반기 무역분쟁으로 인한 중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올해 광공업 취업 자 증가에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되면서 공공일자리 등 공공서비스업 일자 리는 줄었고 담양 택지조성과 강진~광주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수주가 잇따라 전 남 건설업 취업자는 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전국 취업자 수는 26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9만2000명 감소했 다. 실업자 수는 13만3000명 늘어난 127 만8000명, 실업률은 0.5%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했다.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같은 달 기준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9년 이후 최고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95.69 (+6.77) ↓ 금리 (국고채 3년) 0.840 (-0.021)
- ★ 코스닥 758.62 (+4.80) → 환율(USD) 1191.20 (-6.50)

금호타이어, 카카오톡 채널 신규 추가 인증 이벤트

금호타이어는 카카오톡 채널 신규 추가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접 속해 상단 검색창에 '금호타이어(@ kumhotire)' 검색한 뒤 신규 채널로 추 가하면 금호타이어 유튜브 '엑스타TV' 및 공식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발행하는 컨 텐츠 및 이벤트·프로모션 정보를 받아 볼 수 있다.

오는 21일까지 '금호타이어'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 추가하고 금호타이어 페이 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인증 캡처화면을 첨부해 댓글로 응모하는 고객을 대상으 로 추첨을 통해 CGV 영화 관람권과 스타 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등을 제공할 예정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지 난해 11월 '금호타이어 트럭&버스' 채널 을 추가 오픈해 국내 상용차 고객과도 활 발한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카카오 톡 채널 이외에도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 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올해 창립 60주년 을 맞아 고객과의 소통창구 1순위인 홈 페이지를 지난달 전면 리뉴얼 오픈한 바 있다. 국가에 상관 없이 동일한 도메인에 접속하면 각 법인·지사별 홈페이지로 자 동 연결되며, 국내 타이어 3사 최초로 '차량번호 검색 서비스'를 도입해 간편 히 타이어를 추천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60번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에 동구 계림동 '밝은그룹홈' 선정

주 -1만1000명, 전남 -1만6000명)으로

절정이었고 4월(-2만6000명), 5월(-2만

명), 15~29세(-2000명) 순으로 감소폭

20대의 경우 미뤄졌던 상반기 채용이 지

난 5월 본격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고 취업자 수가 1만3000명 늘었다.

만 광주 1만3000명, 전남 1만5000명 증

가하는 등 석 달 동안 5만8000명이 증가

지난 5월 실업률은 광주 4.4%, 전남

2.9%로, 지난해에 비해 각각 0.4%포인트

오르고 0.1%포인트 내렸다. 광주 실업률

은 3개월 연속(3.4%→3.8%→4.2%→

4.4%) 오름세를 보이며 1년 1개월 만에

광주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 5월에

명)에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론혹에서 60번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기념물을 전달하고 있다. 고병일(오른쪽) 광주은행 부행장이 10일 동구 계림동 〈광주은행 제공〉

6명의 아동들이 이용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이 10일 광주 시 동구 계림동 '밝은그룹홈'을 60번째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으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 시설 '꿈사랑그룹홈'은 현재 6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광주은 행은 오래된 책상과 책장을 교체하고 실 내를 새단장했다.

고병일 부행장은 "지역 아동들이 새롭 게 꾸며진 공부방에서 건강하게 꿈을 키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을 지속적으 로 지원하는 등 지역민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 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햇마늘 수매 1300t 추가 배정 농협 전남지역본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전남지역 2020년 산 햇마늘 정부수매물량(남도종)이 1300 t 추가 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전남 수매물량은 1761t에서 73.8% 증 가한 3061t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가 배 정은 마늘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으로 마 늘농가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농 협 측은 설명했다. 올해 전국 수매 목표량 은 총 1만t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마늘 전국 생산 량은 35만3000t으로, 평년 대비 5만t 과 잉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현재 깐 마늘 가격은 1kg당 4250원으로 평년 가격 보다 31% 하락했다.

농협은 면적조절, 정부수매, 농협자체 수매, 수출을 통한 마늘 수급안정대책으 로 생산량을 평년 수준으로 조절할 방침

김석기 본부장은 "예년에 비해 선제적인 정부수매 조치로 신속한 시장격리가 이루 어지는 만큼 마늘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라며 "햇마늘 직거래장터 개장 및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농가가 생 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주는 농협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호남지역 국도 등 위험시설물 28개소 국가안전대진단

익산국토청, 7월 10일까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호남지역 국도 와 국가하천 위험시설물 28개소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국도 내 교량 및 절토사 면과 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광주천 내 배수암거 등 28개 시설물 등이 대상 이다.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은 C등급 이하 1· 2종 시설물 및 30년 이상 노후된 3종 도로

시설물 20개소와 광주천 내 하천시설물 8 개소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익산 국토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 민간전 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지 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 실명제 와 함께 '모바일 안전점검 앱' 시스템도 도 입해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 전대진단을 통해 호남지역 국도와 국가하 천이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중소기업, 스마트워크 인지도 낮다 … 60% "들어본적 없어"

장소 지역 없이 업무를 하는 스마트워크 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지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1~26 일 전국 3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 트워크 구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 면 스마트워크를 들어본 적 없다는 중소 기업이 59.5%에 달했다.

명칭만 들어본 기업은 17.6%였고, 상 세히 알고 있다는 응답은 5.6%에 그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간과 등 스마트워크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인지 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 또 응답자의 68.1%는 스마트워크를 활 용한 경험이 없었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대부분(84.4%)은 모바일 근무 형식을 이 용했다. 영상·화상회의(51%), 재택근무 (28.1%), 클라우드 컴퓨팅(26.0%) 등 순이었다. 스마트워크의 활용 효과에 대 해서는 응답자 대다수(92.7%)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010-2845-4754

